



특별 인터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朴 益 洙 위원장

# 과학기술의 역할극대화를 통한 “수출증대와 실업대책에 최대 역점”

새정부의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에 취임한 박익수위원장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 행정이나 정책을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위원장은 “앞으로 수출증대 및 대량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의 역할 극대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역점을 두고 자문보고를 하겠다”고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 바쁘신 가운데 「과학과 기술」지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제6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이 되신 소감과 아울러 포부라고 할까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직언할 수 있는 기회 큰 보람”

내가 정부의 행정관계에서 일한다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자리는 나

대담 /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  
장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실  
일자 : 5월 18일 오후 2시

의 적성에 맞는 직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신문지상을 통해 과학기술 행정이나 정책에 대한 평론을 해 왔으나 이것이 허공을 향해 소리지르는 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잘 잘못을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실효성 있는 자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이번 자문위원은 내가 추천한 대로 승인이 되어 대통령에게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해야 한다는 책임을 깊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선정의 기준은 각 행정부의 기능에 맞는 전문성과 분야의 경험을 고려하였으며 현재 선정위임된 위원들은 그러한 점에서 무난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와 새로 발족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 분담은 어떤 것인지요.

대통령과학기술위원회는 「새 정치 국민회의」의 대통령선거 공약실천 「100대 과제」중의 하나이며 그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원칙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대통령께서 과학기술자들 모임에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력의 강화가 필요하고 국내수요를 위한 수입 대체를 위해서도 중소기업기술의 선진화,

첨단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내가 직접 챙겨서 제도적 행정적 문제라든지 정책 및 예산문제 등에 대해 관여할 생각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행정개혁 위원회에서 실천하는데 이 과제의 「안」을 정식으로 관계행정부인 과학기술부에 의뢰하여 과학기술부가 다음과 같은 조직과 역할로 활용할 「안」을 내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관계 행정부 장관(16)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1), 그리고 민간인(2~3)으로 구성하고 연구과제 및 예산조정 등을 하는 법제화한 기관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인데 반해 내 생각은 그 위원회는 비법제화된 비상설기관으로 대통령의 필요에 따라 연구과제 및 예산을 조정하는 최종 결정기관으로 이용하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제 및 연구과제의 계획 및 결과처리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의 국제목표에 따른 목표관리의 판단과 의견을 보고 받고 자문하는 기능으로도 이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 연구기관장의 의견과 견해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대통령의 입장에서) 기관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출연연구기관의 조정문제와도 얽혀서 여러 가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지켜볼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능에 있어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현재 준비중인 자문과제는 어떤 것이 있

습니까.

올해 대통령에게 자문보고할 후보 과제로는 ①수출증대 및 대량 실업 대책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의 역할 극대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방안 ②국가과학기술정책 목표관리를 위한 종합조정 및 효율적 평가기능의 개선방안 ③IMF체제하의 민간 기업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 내부 유보자금의 운영과 효율화방안 ④벤처산업 육성정책 추진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 ⑤원자력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제개편 방안 등입니다.

■ 우리는 지금 IMF시대를 맞아 연구개발 전반에 걸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과제별 간담회·토론회 계획

IMF사태에 있어서의 당면한 중요한 과제는 첫째 수출증대, 둘째 실업대책, 셋째 중소기업육성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자문회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과학기술인과 과학기술연구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는 것이 좋으며 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당면한 연구과제를 설정, 수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여러 형태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한 나라의 과학기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통치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金大中대통령은 역대 통

치권자 가운데서 과학기술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기대를 크게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 중점을 두고 대통령을 보필할 계획이신지요.

내가 판단하고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의 근본 취약점은 국책목표에 따른 '목표관리'가 허술하고 모든 정책과제와 연구과제에 대한 계획의 심사 및 연구결과와 평가 그리고 실용화 연계를 위한 처리행정이 형식적이거나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객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제도의 운영이라든지 그러한 풍토가 조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증액을 하거나 구조개선을 한다해도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무망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제적 평가에서 매년 뒤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대통령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적 제도적 자문 책임을 맡고 있어 이러한 평가업무를 직접 다루는 입장에서 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와 과학기술 관련 행정부의 정책과제(혹은 정책사업)들이 매년 과학기술부를 위시하여 과학기술 관련 행정부에 의해 국책에 따른 과학기술정책목표에 기여하도록 충실히 계획되고 어떻게 결과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므로써 과학기술정책과 제도에 관한 정확한 판단으로 확실한 정책자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朴益洙 신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좌측)이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에게 취임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평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평가방법'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든 과학기술 관련과제들에 대한 정확한 정책자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형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정책계획 및 연구계획들의 심사나 결과처리방식이 좀 더 객관성 있고 신뢰성이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님께서도 과학대중화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과학대중화사업의 중요성과 이를 강화하는 일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지요.

### 과학기술대중화 선행돼야

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은 과학기술이 사회경제적 발전의 가장 중심적인 축이 되고 추진력이 되어야 하

는 동시에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병행하여 국민의 교양과 이해로 교육되어 갈 때 그 과학기술사회는 유익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사회의 발전은 사회경제의 과학기술화사업과 과학기술의 대중화사업을 두 축으로 하여 같이 발전할 때 가장 원만한 과학기술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치와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책임의 하나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대중화정책이 거의 실종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IMF시대에 있어서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만 정책입안자는 물론 과학기술자 그리고 일반국민 모두가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절실한 문제의식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⑰